

5월 14일 뉴스 종합 정리

2009년 5월 14일

리서치센터

02) 2009-7083

hsjeong@leading.co.kr

제목	주요 내용
美 증시 `소매지표 실망매물`..다우 2.1%↓	최근 랠리로 밸류에이션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소매판매 지표가 예상밖의 부진을 보인 점이 영향을 미쳐 뉴욕증시 급락. 블루칩 중심의 다우 지수는 184.22포인트(2.18%) 떨어진 8,284.89를,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51.73포인트(3.01%) 급락한 1,664.19를, 대형주 중심의 S&P 500 지수는 24.43포인트(2.69%) 하락한 883.92를 각각 기록했다. 뉴욕증시는 소매지표 악재로 개장초부터 큰 폭으로 떨어졌고, 4월 주택압류신청이 2개월 연속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는 소식도 투자심리에 부담을 줬음. 최근 2개월간 급등한 영향으로 밸류에이션에 부담이 커졌던 상황에서 악재성 재료들이 나오자 차익실현 및 경계성 매물들이 뒤섞여 출회되면서 주요 지수들이 급락했음. 소매지표가 예상밖의 부진을 내보이자 경기회복 지연 우려감으로 국제유가가 하락한 반면 지표부진으로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가 늘면서 미국 국채와 미 달러화는 강세를 보여 대조를 이루었음.
4월 소매판매 예상밖 감소..기업재고는 7개월째 감소	미 상무부가 발표한 4월 소매판매(계절조정)가 전월 대비 0.4% 감소했고 전월 수치도 1.2% 감소에서 1.3% 감소로 하향 조정되었음. 집값 하락 등으로 가계의 자산가치가 크게 감소한 가운데 실업률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면서 가계의 소비능력을 계속해서 제약하고 있다는 분석임.
4월 주택압류신청 전년비 32% 급증..사상 최대	부동산 조사업체인 리얼티트랙(RealtyTrac)은 4월중 주택압류신청을 받은 주택수가 전년비 32%나 급증한 34만 2,038채에 달했다고 밝혔음. 이는 미국의 374가구중 1가구꼴로 압류신청을 받은 셈이다. 특히 4월 주택압류신청 건수는 2005년 데이터가 집계된 이래 2개월 연속 최대를 기록했다. 주택가격 하락으로 주택의 담보가치가 크게 떨어진 반면 실직 가정을 중심으로 모기지(주택담보대출) 연체자들이 급증하고 있기 때문임.
의료개혁법안 조기 처리 기대감으로 증시 낙폭 소폭 줄이기도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이날 민주당 지도부와 회합한 직후 연설을 통해 의료개혁법안이 경제회생과 재정적자 억제에 도움을 준다면, 미 의회에 대해 연내 의료개혁 법안 처리를 촉구했음. 이와 관련, 낸시 펠로시 의장은 7월말까지는 의료개혁법안이 하원에 올려져 토의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언급했고 의료개혁법안이 7월중 하원을 통과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이 나오면서 뉴욕증시는 장중 한 때 낙폭을 조금이나마 줄이기도 했음.

제목	주요 내용
국제유가, 지표부진에 하락	. 원유재고 감소했다는 호재에도 불구하고 소매지표 악재가 더 큰 영향을 받아 국제유가가 하락세를 보이며 배럴당 58달러로 마감했음. 13일(현지시간) 뉴욕상업거래소(NYMEX)에서 거래된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 6월 인도분 가격은 배럴당 83센트(1.4%) 하락한 58.02달러로 거래를 마쳤음.
英바클레이, 亞·유럽 M&A·주식 부문 확대	영국 3위 은행인 바클레이가 아시아와 유럽 지역에서 인수·합병(M&A) 자문과 주식발행 업무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블룸버그 통신이 14일 보도. 바클레이의 이러한 사업 부문 확대는 리먼브러더스 북미 사업부문을 인수하면서 관련 사업 포트폴리오 역량이 늘어났기 때문.
크란제 "ECB, 채권매입 규모 확대할 것"	유럽중앙은행(ECB)이 '양적 완화' 정책으로 추진하는 국채 및 회사채 매입 규모가 당초 발표된 600억유로(820억달러)를 상회할 전망. 13일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ECB 집행위원을 맡고 있는 마르코 크란제는 ECB의 채권 매입 규모가 600억유로를 상회할 것이라고 언급.
유로존, 3월 산업생산 20.2%↓...사상 최대폭	유럽연합(EU)의 공식 통계기관 유로스타트는 이날 유로존의 3월 산업생산이 전년 대비 20.2% 감소했다고 발표. 이는 관련 조사를 시작한 1986년 이래 사상 최대 감소폭. .
日기업도산, 11개월 연속 증가세	시장조사기관 테이코쿠 데이터뱅크는 이날 일본의 4월 기업 도산 건수가 전년 동월 대비 15.4% 증가한 1169건을 기록했다고 발표. 운수통신이 56.8% 증가한 58건으로 최다 도산 건수를 기록했고 제조업의 도산도 31.9% 증가.
4월 일자리 급감 `주춤`..실업자 93.3만명	13 일 통계청이 발표한 `4 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4 월 취업자수는 2,352 만 4,000 명을 기록, 전년동월대비 18 만 8000 명 감소. 작년 12 월 이후 5 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간 것. 그러나 감소폭은 전월의 19 만 5,000 명보다 다소 줄었음. 실업자수는 93 만 3,000 명으로 전년동월 대비 14 만 8,000 명 증가했으나 전월대비로는 1 만 9,000 명 감소. 실업자수가 전월대비 줄어든 것은 8 개월만임. 그 결과 전체 실업률도 전월의 4%에서 3.8%로 개선됐음.
환율하락 수출 발목 잡을라..정부 대책반 구성	지경부는 우선 대기업 중심의 수출 구조에서 벗어나 중소기업 수출 지원에 집중할 계획. 중소기업 수출마케팅 예산도 확대한다는 방침. 지경부 관계자는 "그간 단기적인 대책에 집중하면서 수출이 대기업 중심으로 이뤄진 측면이 없지 않다"며 "환율이 하락하더라도 근본적인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이 수출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설명. 이에 따라 환율 변동에 대응한 수출기업들의 환위험 관리능력 제고를 지원하기 위한 환변동보험을 정상화시키고 환관리 교육도 더욱 강화할 예정.

<참고> 위 내용은 단순한 정보전달로서 뉴스를 정리한 것입니다.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